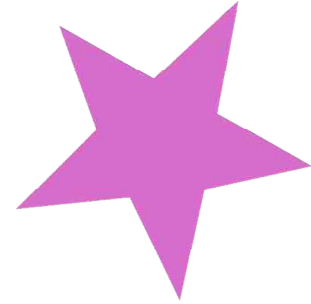


은여울 리딩스타



- Group Bookit 2기
- 독서금융교육활동 4차 후기

진행일정 & 참여인원

4차 독서모임

- 10월 21일 - 도서 & 활동지(모임활동)
- 10월 21일 ~ 25일 - 도서 & 교구재활동(가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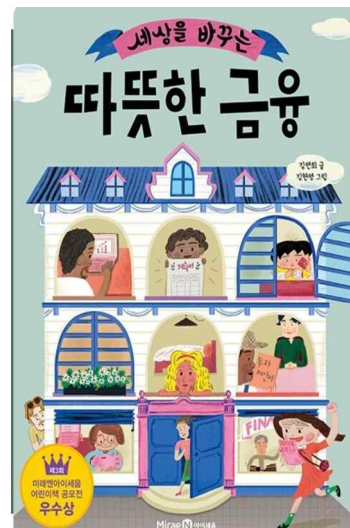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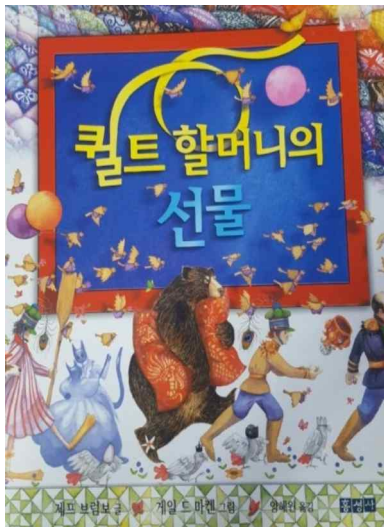
6명

이들(8살) 이봄(11살)
이서진(8살) 이하진(10살)
문승호(8살) 문지호(10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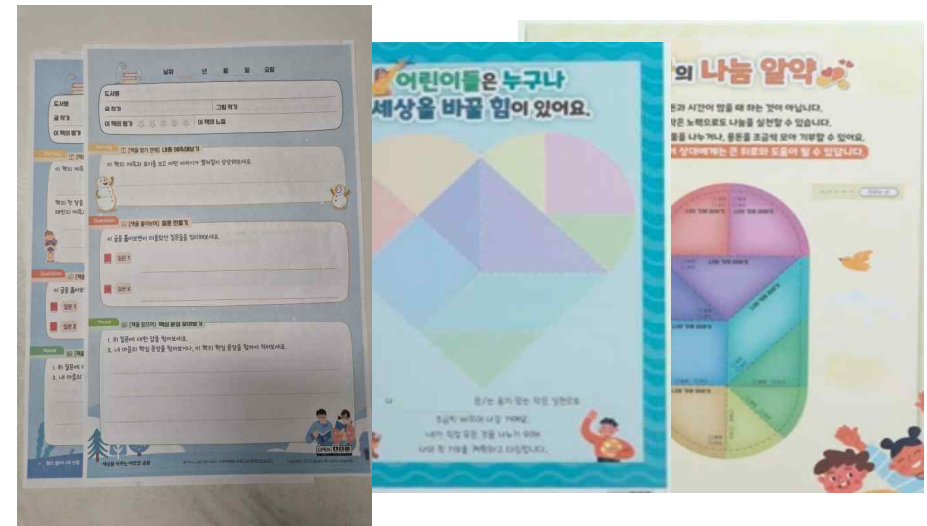
Bank it 추천도서 & 활동지/교구재

[6세 ~ 초등학교 1학년 추천도서] [초등학교2학년 ~ 4학년 추천도서]

활동지/교구재(사랑의 나눔 알약)



&



활동방식 및 내용

1. 모임 활동

- 모여 도서를 읽고 활동지 하기



1. 모임활동

- 10월 21일 모임을 통해 [퀼트할머니의 선물]를 읽고 활동지를 했다. 모임활동을 못한 경우 가정에서 진행했다.

♥ 내용 예측

퀼트할머니가 이불을 나눠준다. / 상상이 어려워요(2명)/ 이불을 선물할것 같다. / 할머니가 평화롭게 생활하는 이야기같다. / 큰 이불을 만들것 같다.

♥ 질문 만들기

할머니는 왜 왕에게 퀼트를 뒀을까? / 할머니는 왜 퀼트를 만들었을까? / 왕이 나무에 올라갔을까? / 신하가 왜 할머니의 집으로 갔을까? / 할머니가 너무 착하지 않나? / 왕은 너무 욕심이 많지 않나? / 왕은 왜 선물이 많은가? / 왕은 어떻게 퀼트를 받았을까? / 참새가 많은 이유는?

♥ 핵심문장

내 퀼트는 가난하거나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것이지 부자들에게 팔려고 만든게 아닙니다.(2명) / 겉으로는 내가 가난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은 행복한 기억들로 꽉차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라구(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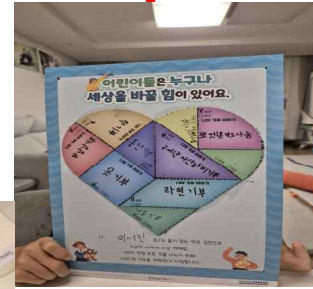
♥ 이책의 느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용이어서 마음이 따뜻 / 좋았어 / 행복했어 / 마음이 따뜻했다(3명)

활동방식 및 내용

2. 가정활동 (사랑의 나눔알약)

- 10월 21일 ~ 25일까지 각 가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금융' 책을 읽어보고, 교구재 활동으로 '사랑의 나눔알약'을 만들었다. 금융이란 무엇인지, 펀딩, 무이자, 협동조합, 채권등 다양한 용어도 같이 알아봤다. 나눔의 알약에 기부해봤던 것부터해서 앞으로 기부할것을 적어 완성하였다.



공식 질문 & 소감

1. 기부를 왜 해야할까?

2. 쿼트할머니처럼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재능기부) 기부를 한다면 어떤것이 있을까?

3.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금융 책에 나온 여러 금융기업들 중 참여해보고 싶은 금융 기관이 무엇이고 이유는 뭐야?

4. 책과 교구재를 만들면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써보고, 기부에대해서도 배웠는데 소감한마디!

이 봄	<u>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라에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는것 같다. 그림전시회를 해서 돈을 받아 기부를 하고싶다. 타임뱅크에 참여해보고 싶다. 그림봉사를 열심히 해서 시간을 저축해서 나중에 쓰고 싶다. 다른 일정들이랑 겹쳐서 시간이 부족했지만 금융에 대해 알게되어 좋았다. 그 중 가장 최근에 한 쿼트 할머니가 제일 생각이난다. 쿼트할머니가 너무 착하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쿼트 할머니였다면 왕한테 쿼트 할 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쿼트를 어려운사람 도와줄것같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부는 이해하기 참 힘든것같다.</u>
이 들	<u>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싶어서 한다. 글을 잘 못읽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 무이자 은행을 해보고 싶다. 나도 저축을 하고, 필요할때 빌려쓰려고한다.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 더 많은것을 배워서 좋았어. 그중에 가게 만들기가 재미있었어. 진짜 내가 가게를 만든다면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어려운사람들에게 나눠줄수있을것같다는 생각을해서 뿌듯했어.</u>
이하진	<u>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위해서 기부를 해.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 그림그려주는걸 하고 싶어. 나중에 편딩을 하고 싶어. 가게만드는게 좋았어. 여러가지 물건을 그릴수 있어서 또 돈의 여러가지 특징, 저축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서 좋았음.</u>

공식 질문 & 소감

1. 기부를 왜 해야할까?

2. 쿼트할머니처럼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재능기부) 기부를 한다면 어떤것이 있을까?

3.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금융 책에 나온 여러 금융기업들 중 참여해보고 싶은 금융 기관이 무엇이고 이유는 뭐야?

4. 책과 교구재를 만들면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써보고, 기부에대해서도 배웠는데 소감한마디!

이서진	<u>어려운 사람을 도와주 주려고 기부해. 색종이 접기를 잘하니 비행기를 접어주고 싶어. 나중에 굿캐피털을 이용하고 싶어. 로봇을 만들어서 전쟁을 이겨 낼꺼야. 가게 만들기가 재미있었어. 또 처음에 했던 저금통만들기도, 돈을 배우니까 돈을 잘 쓸수 있을것 같아.</u>
문지호	<u>(환경)기부를 안하면 환경이 다 무너져버린다. 지금 우리가 아주 경계선에 서있어. 아주 얇아. 언제 무너질지 몰라. 기부까지 안한다면 환경은 무너질수도 있으니까. 환경이 무너지면 독거노인, 보육원아이들, 노숙자들에게 기부를 할 수가 없어. 환경에 대해 공부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오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싶다.</u> <u>나는 그라민은행에 참여해보고 싶어. 이슬람국가에서 여성에게만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너무 황당했는데, 그라민은행은 여성에게도 돈을 빌려준다는것이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랑은 다르게 이자도 조금만 쳐주니까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수있다는점이 좋았어. 초기에는 도대체 이게 뭘하는건가 싶고 조금 짜증도 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활동들이 점점 재밌어졌다. 돈은어떻게벌까요처럼 무언가를 팔아서 진짜로 돈을 벌어보는 활동을 꼭 해보고싶다. 돈을 벌면 뿌듯할것같다.</u>
문승호	<u>그래야지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있으니까.종이전문가가 되어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미니카 종이접기를 가르쳐주고 싶어.</u> <u>난 다음에 기부를 꼭 한번 실천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기부라는 것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이 내가 기부한걸 받으면 내 기분이 뿌듯할것같아. 타임뱅크를 이용해보고 싶어. 나도 봉사하고, 내가 필요할때 봉사를 받고 좋잖아.</u> <u>내가 더 용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걸 사는 방법도 배우고 아주 좋았어.</u>

부모의 4차활동 소감

허경미 (이봄, 이들)	아이들도 부모들도 어려운 금융교육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독서와 교구 활동이 적절하게 매칭이 되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돈을 벌고 잘 사용하는 금융경제교육으로만 그친것이 아니라 기부에 대해서 다룬것이 너무 의미있었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기부에 대해 왜해야하지?라는 물음표를 표현하지만 기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날이 올꺼라고 믿습니다. 돈을 가치있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즐겁고 의미있는 교육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한 리딩스타 아이들 응원한다!!
윤혜영 (이하진, 이서진)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 함부로 여기저기 다 써버릴것 같아서 용돈을 주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금융교육을 책과 교구재로 하다보니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게 잘 배워나갔던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고, 쓰고에서 멈추지 않고, 기부내용도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금융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 교육을 하고 난뒤로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고, 돈이 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홈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하니 집안일도 시키고 좋았습니다. 또한 책을 읽기전, 예측하기, 질문만들기, 책을 읽고, 핵심문장찾기, 이야기속으로, 다시보기 활동들을 할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힘들어 했으나 점차 자연스럽게 말하고, 쓰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활동을 할때 이것을 기반으로 활동하면 되겠다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뱅크잇덕분에 좋은 활동자료들과 함께 금융에 대해 배워나갈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혜 (문지호, 문승호)	기부 하트를 만들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기부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난민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항생제 몇 알이 없어서 다리를 절단하는 아이들, 부모 없이 할머니와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아이...기부를 하고 싶은 순간은 아주 많았다. 하지만 동시에 접하게 되는 씁쓸한 소식들...어차피 그 돈 100프로 그 아이들에게 가는게 아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와 부정 기사들...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불편한 길거리 호객행위들... 생각을 계속해가며, 기부를 망설이게 만든 불편한 감정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금전적 기부는 항상 망설임이 있었고, 그냥 확실히 내눈에 보이는 봉사나 재능기부, 실물기부를 기회가 있을때 조금씩 하며 살아왔던것같다. 하지만 이번 금융활동을 통해 기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의 아이들이 이웃을 살펴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길 바라며, 나도 위의 일들을 핑계삼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기부에 동참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아이들도 성장하고,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의미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